



## 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5 호

2018. 5. 17

새생명으로 주위 곳곳에서 피어나는 봄꽃은 아름다운 감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그렇게 반드시 피어나야 하는 소명인듯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약 5개월간 펠디와라 교회의 수리를 1월 중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수리할 부분이 더 남아 있지만, 재정적인 소요로 수리 하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과 주일학교 공간을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수리를 함께 했던 “우유”형제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도박과 술담배에 찌든 생활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도박과 술담배를 끊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헌신하며 열심히 전도하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5월 27일 주일은 총력전도주일을 갖습니다. 이 기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를 섬기는 파네 전도사가 몸의 여러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네전도사의 건강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인 야노스, 아디쇼르, 소린 안수집사가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아라치 교회와 아리우슈드 교회의 주일학교

가난한 집시들이 군집을 이루고 사는 아라치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게임, 인터넷등은 어김없이 교회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청소년들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알리나, 마리아나, 크리스티, 니콜라에, 그리고 요안나가 믿음으로 자라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잘 훈련되어 준비된 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루마니아의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서유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펠디와라 근처의 작은 마을인 아리우슈드 주일학교 아이들의 일부가 독일등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도시로 이사하기도 하여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기회 있는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 ♣ 브라쇼브 주일학교 수련원

브라쇼브 지역의 주일학교 모임장소를 위해 주일학교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아폴로 목사를 통해 수련원을 준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련회 모임 장소가 없어 매년 여름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의 도움을 입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수리하여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수리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잘 마무리 되어 올 여름부터 이곳에서 브라쇼브주의 주일학교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 지도자 기도모임을 통한 지도자 훈련

지도자들이 꾸준히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래 지도자될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 지도자 훈련 및 소양을 위한 과목 위주로 특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을 위해 미국의 4명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며 섬겨주셨고, 10월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몇 명의 지도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한적한 들로 나가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기도로 잘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 ♣ 본월드미션 선교매장을 열며

어느새 맞은 루마니아 선교 19년, 그저 주님 따라 가고자 하는 걸음인 줄 생각하고 내 디뎠는데, 되돌아보니 어찌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내 이명자 선교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사역을 돕고 있는 한국의 '본죽'기업을 통해 이명자 선교사가 이곳 브라쇼브에 한국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윤을 통해 선교사역을 돕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쓰임받고, 아울러 예진의 검진을 위해 매년 한국에 다녀오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및 생활비로 인해 빛이 남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역자 디누 전도사는 적은 사역비를 받으며 힘껏 섬기고 있고, 대신 그 아내가 어렵게 일하면서 재정을 돕고 있는데, 이미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고 있어 힘들어 합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디누 전도사와 파네 전도사는 연금이 없기에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본죽'선교매장(레스토랑)은 교회가 개척된다는 마음으로 세워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아 아름다운 목표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가족소식

제가 1월중순부터 2월말까지 췌장수술후 결과 및 추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고, 췌장 다른 부위도 추적이 필요하였는데 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강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교회와 드르너베니 교회를 통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2. 브라쇼브지역의 교회들의 주일학교에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있도록
3. 선교매장이 귀하게 쓰임받고 가족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예금주:GMS배만주) LG 070 8625-7488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 (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